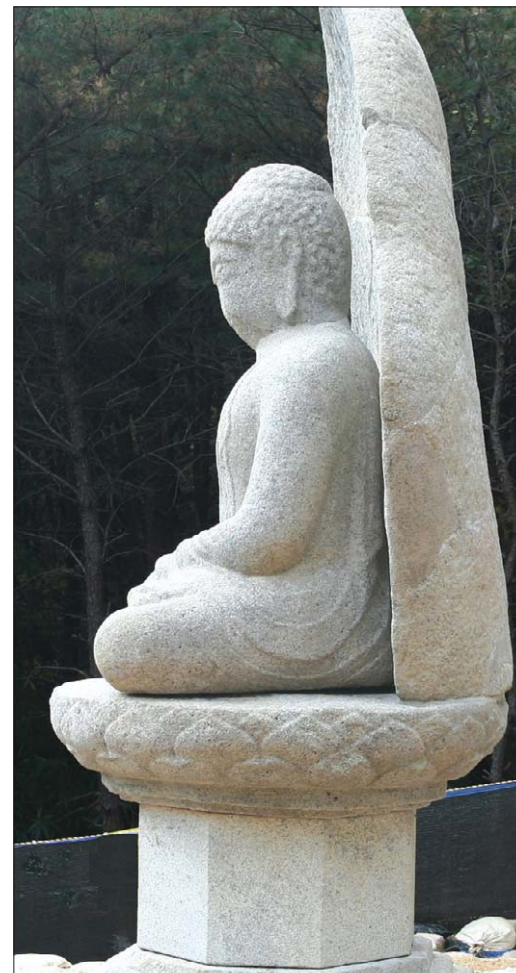




2005년 경주 남산 열암곡 발견 당시 불두와 함께 크게 파손됐던 열암곡석불좌상(경북도유형문화재 제113호)의 작업 끝에 제 모습을 찾았다. 사진은 석불좌상의 발견 당시 모습(좌)과 복원 후 모습(우).



법구경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써만 정복되거나
영원한 진리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효로운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뒷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륜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륜사무소
서안
허리·목·관절
민사·형사·가사·행정
1강영희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최신맛있는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고생의 뽕잎차 이야기
다들 좋아하고
건강을 위한
뽕잎차
주요소재 100%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종도사발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술 향사료 면역 100%”
청디향
덕유산 청디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문화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만능

열암곡 석불좌상 제 모습 찾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불두·광배 등 복원 완료

경주 남산 열암곡석불좌상(列岩谷石佛坐像,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13호)이 1300여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당당하고 풍만한 몸체를 가부좌를 틀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가 1월 29일 석불좌상의 정비를 마치고 현장보고회를 개최한 것.

열암곡석불좌상은 통일신라시대(8~9세기) 불상으로 2005년 경주 남

산 열암곡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발견 당시 불두(佛頭)가 계곡 아래에 떨어져 있고 광배(光背)는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있는 등 크게 파손돼 보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복원·정비는 연구소와 경주시(시장 백상승)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신라 불교문화의 보고 경주 남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구소는 2007년 4월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1년 6개월간의 작

업 끝에 불상을 높이 4m에 광배와 대좌를 갖춘 당당한 모습으로 복원했다.

떨어져 나간 불두는 보존처리 후 불身に 접합하고, 10여 조각으로 깨진 광배는 구조보강 작업을 거쳐 안전하게 접합했다.

특히 광배는 연화문(蓮華文), 화불(化佛), 불꽃무늬 새김 등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아우르는 거신광(擧身光)의 면모를 갖췄다. 또 유실된 중대석(中臺石)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 형식에 따라 새로 만들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주현 학예연구관은 “이번 열암곡석불좌상 정비는 신라인의 신앙지였던 경주 남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 참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금주 신문 20면 발행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시설 여전히 부족”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송례문 화재참사 1년이 지난 지금, 국내 목조 문화재의 화재예방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 송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후 국민들의 안타까움 만큼이나 문화재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는 듯 했지만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월 19~23일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관리 지자체와 소유(관리)자에게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송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문화재청과 ‘2008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산

불예방에 대한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알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기 위해 △소방설비 및 화재예방 시설 △산불 예방설비 및 산불위험요인 △각종 전기설비 및 가스설비 안전 등의 항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나무 불회사, 양산 통도사, 강진 무위사 등은 일부 소방분야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분야별 지적사항은 △전기분야=전기누전차단기 보수·설치 및 노후 전선 교체 △가스분야=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 설치 △산불분야=산불방지를 위해 인접 산내 잡목·낙엽 제거 등이다.

홍두식 재난관리총괄담당(문

화재청 문화재안전과)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소화기, 소화전, 가스·전기시설 등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 보수 및 추가 설치 등 보완이 필요했다”며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문화재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참배객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홍보물 등을 설치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시설물 보안을 위해 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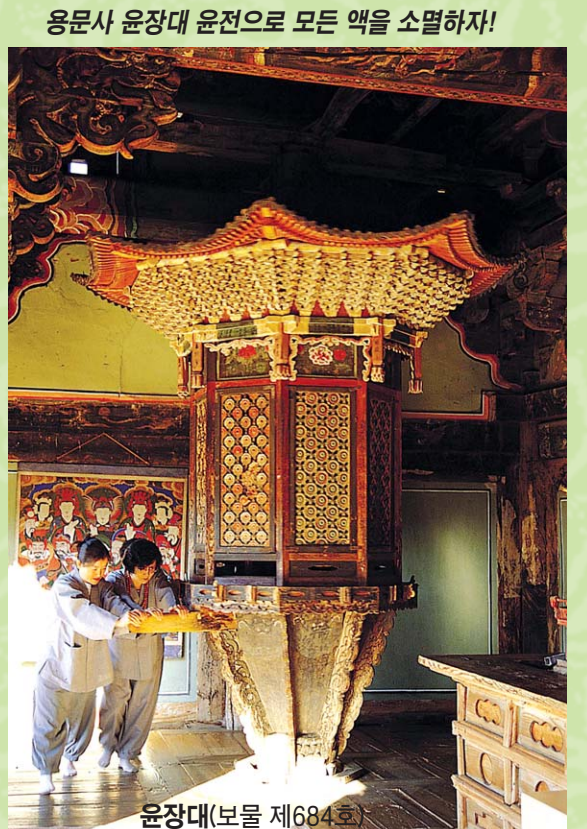
“생명주는 말은 재앙없다”
선지식을 찾아서
▶10 호산 스님

“마음 밖 불성 따로없다”
산 스님의 달마록 선행
▶6 덕산 스님

월서 스님의 주련이야기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행
현불만평
▶6
▶19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금주 신문 20면 발행



운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고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양은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송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 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